

‘쿠바 특급’ 2시즌 연속 1000득점 눈앞

GS칼텍스 올시즌 955득점 기록 중 한 경기 최다 55점 몰아치기도 16일 IBK전서 달성 목표 예상 남자부도 두 번에 그친 대기록

여자 프로배구 GS칼텍스의 ‘쿠바 특급’ 지젤 실바 (34·등록명 실바)는 올 시즌 ‘괴물’ 공격수다운 활약을 펼쳐 왔다.

실바는 지난달 5일 페퍼저축은행전에서 올 시즌 한 경기 최다인 55점을 몰아치는 등 세 차례 한 경기에서 50점 이상을 뽑았다. 올 시즌 여자부 한 경기 최다 득점 1위부터 6위까지 모두 실바의 기록이다.

실바는 정규리그 두 경기를 남겨두고 새로운 이정표 세우기에 도전한다.

이번 시즌 여자부 득점왕을 확정짓는 실바는 현재 955점을 기록 중이다.

45점만 보태면 여자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두 시즌 연속 1000득점을 달성한다.

2년 연속 1000득점은 남자부에서도 두 차례밖에 나오지 않은 대기록이다.

현대캐피탈의 ‘쿠바산 폭격기’ 레오나르도 레이바 마르티네스(등록명 레오)가 삼성화재 소속이던 2013~2014시즌(1084득점)과 2014~2015시즌(1282득점) 때 V리그 역대 첫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이어 KB손해보험에서 뛰었던 노우모리 케이타가 2020~2021시즌(1147득점)과 2021~2022시즌(1285득점)에 두 번째로 작성했다.

여자부에서는 실바가 첫 도전이고, 지금 페이스로는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쿠바 출신의 레오가 12일 삼성화재전에서 18점을 뽑으면서 통산 6637점을 기록, 박철우(은퇴)가 보유 중이던 통산 최다득점(6623점)을 넘어 신기록을 세운 데 이어 실바가 대기록 수립에 나선 것이다.

2005년 V리그 출범 후 여자부에서 한 시즌 1000득점 이상은 4차례밖에 없었다.

2011~2012시즌 KGC인삼공사 소속이던 문타노(마멜레인 문타노 카이세도)가 1076득점으로 이 부문 신기록을 작성했고, 같은 팀의 조이스(조이스 고메스 다 시우바)와 엘리자벳(엘리자벳 이네 바르가)

이 2013~2014시즌과 2022~2023시즌 각각 1009득점과 1015득점을 기록했다.

이어 실바가 지난 2023~2024 시즌 1005득점으로 이 부문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실바는 올 시즌 30경기에서 955점을 정확히 경기당 평균 31.8점을 사냥했다.

실바가 16일 IBK기업은행전(화성종합체육관)에 이어 2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흥국생명과의 올 시즌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2년 연속 1천득점 축포를 쏘아 올릴 전망이다.

특히 20일 흥국생명전은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구 여제’ 김연경(흥국생명)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다.

실바가 올 시즌 다섯 차례 한 경기에서 45득점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16일 기업은행전에서 대기록을 달성할 수도 있다.

2025~2026시즌에도 GS칼텍스 유니폼을 입고 V리그에서 계속 뛰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실바가 김연경과 맞대결에서 대기록을 달성할지 주목된다.

한편 여자 프로배구 현대건설과 정관장이 다친 위파위 시퐁(등록명 위파위)과 반야 부키리치(등록명 부키리치)의 교체 선수를 영입하지 않고 플레이오프를 치를 전망이다.

현대건설의 아시아 쿼터 선수로 맹활약하던 위파위는 지난달 7일 정관장과 원정 경기 때 공격 후 착지 과정에서 무릎이 뒤틀리면서 전방 삽자민대가 과열돼 수술받고 ‘시즌 아웃’됐다.

정관장의 외국인 주포 부키리치도 지난달 22일 GS칼텍스전에서 착지 과정에서 왼쪽 발목 인대가 과열돼 4~6주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관장의 외국인 주포 부키리치도 지난달 22일 GS칼텍스전에서 착지 과정에서 왼쪽 발목 인대가 과열돼 4~6주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관장의 외국인 주포 부키리치도 지난달 22일 GS칼텍스전에서 착지 과정에서 왼쪽 발목 인대가 과열돼 4~6주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관장의 외국인 주포 부키리치도 지난달 22일 GS칼텍스전에서 착지 과정에서 왼쪽 발목 인대가 과열돼 4~6주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관장의 외국인 주포 부키리치도 지난달 22일 GS칼텍스전에서 착지 과정에서 왼쪽 발목 인대가 과열돼 4~6주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관장의 외국인 주포 부키리치도 지난달 22일 GS칼텍스전에서 착지 과정에서 왼쪽 발목 인대가 과열돼 4~6주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관장의 외국인 주포 부키리치도 지난달 22일 GS칼텍스전에서 착지 과정에서 왼쪽 발목 인대가 과열돼 4~6주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관장의 외국인 주포 부키리치도 지난달 22일 GS칼텍스전에서 착지 과정에서 왼쪽 발목 인대가 과열돼 4~6주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관장의 외국인 주포 부키리치도 지난달 22일 GS칼텍스전에서 착지 과정에서 왼쪽 발목 인대가 과열돼 4~6주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관장의 외국인 주포 부키리치도 지난달 22일 GS칼텍스전에서 착지 과정에서 왼쪽 발목 인대가 과열돼 4~6주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관장의 외국인 주포 부키리치도 지난달 22일 GS칼텍스전에서 착지 과정에서 왼쪽 발목 인대가 과열돼 4~6주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관장의 외국인 주포 부키리치도 지난달 22일 GS칼텍스전에서 착지 과정에서 왼쪽 발목 인대가 과열돼 4~6주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관장의 외국인 주포 부키리치도 지난달 22일 GS칼텍스전에서 착지 과정에서 왼쪽 발목 인대가 과열돼 4~6주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관장의 외국인 주포 부키리치도 지난달 22일 GS칼텍스전에서 착지 과정에서 왼쪽 발목 인대가 과열돼 4~6주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관장의 외국인 주포 부키리치도 지난달 22일 GS칼텍스전에서 착지 과정에서 왼쪽 발목 인대가 과열돼 4~6주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관장의 외국인 주포 부키리치도 지난달 22일 GS칼텍스전에서 착지 과정에서 왼쪽 발목 인대가 과열돼 4~6주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관장의 외국인 주포 부키리치도 지난달 22일 GS칼텍스전에서 착지 과정에서 왼쪽 발목 인대가 과열돼 4~6주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관장의 외국인 주포 부키리치도 지난달 22일 GS칼텍스전에서 착지 과정에서 왼쪽 발목 인대가 과열돼 4~6주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GS칼텍스 지젤 실바가 지난달 2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정관장과 GS칼텍스의 경기에서 공격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이날 실바의 32득점에 힘입어 세트 점수 3-1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KIA 개막전 선발은 네일 한국시리즈 등 경험 탄탄”

이범호 감독 “애덤 올라보다 나아… 조상우도 걱정 없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이 정규 시즌 개막전 선발은 제임스 네일(사진)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범호 감독은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야구장에서 두산 베어스와 시범 경기를 치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개막전 선발은 네일로 가려고 생각 중”이라며 “한국시리즈 1차전 등 큰 경기 경험이 많은 투수기 때문에 애덤 올라보다는 네일을 먼저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네일은 지난 시즌 KIA에서 12승 5패, 평균 자책점 2.53을 기록했다.

삼성 라이온즈와 한국시리즈 1, 4차전에도 선발로 나오는 등 KIA의 통합 우승에 큰 힘을 보탤 예정이다.

2025시즌을 앞두고 KIA에 합류한 올라는 8일 롯데 자이언츠와 시범 경기에서 3이닝 1실점을 기록했고, 이날 두산과 시범 경기에도 선발 등판한다.

이 감독은 “올리는 오늘 4이닝을 던질 예정이고 70~80구 정도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또 지난해 12월 트레이드로 영입한 투수 조상우에 대해서도 “준비 상태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며 “선수 본인이 훈련을 많이 했고 준비를 잘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신뢰를 내보였다.

조상우는 8일 롯데와 경기에서 1이닝 2실점, 11일 NC 다이노스전에서는 1이닝 1실점 등 아직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 감독은 “아무리 잘 던지는 투수도 시즌에 홀드 20~30개면 훌륭한 결과”라며 “너무 많은 것을 보여달라고 하면 선수가 부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범 경기 타율 0.100에 그치고 있는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드먼을 이날 5번 타수에 배치할 것에 대해 이 감독은 “5번도 가보고, 6번도 가보고 하면서 체크하는 중”이라며 “시즌 들어가면 한 타선으로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실험)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시즌 최우수선수(MVP) 김도영에 대해서는 “타순 고민 없이 3번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범호 감독 “애덤 올라보다 나아… 조상우도 걱정 없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이 정규 시즌 개막전 선발은 제임스 네일(사진)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범호 감독은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야구장에서 두산 베어스와 시범 경기를 치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개막전 선발은 네일로 가려고 생각 중”이라며 “한국시리즈 1차전 등 큰 경기 경험이 많은 투수기 때문에 애덤 올라보다는 네일을 먼저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네일은 지난 시즌 KIA에서 12승 5패, 평균 자책점 2.53을 기록했다.

삼성 라이온즈와 한국시리즈 1, 4차전에도 선발로 나오는 등 KIA의 통합 우승에 큰 힘을 보탤 예정이다.

2025시즌을 앞두고 KIA에 합류한 올라는 8일 롯데 자이언츠와 시범 경기에서 3이닝 1실점을 기록했고, 이날 두산과 시범 경기에도 선발 등판한다.

이 감독은 “올리는 오늘 4이닝을 던질 예정이고 70~80구 정도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또 지난해 12월 트레이드로 영입한 투수 조상우에 대해서도 “준비 상태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며 “선수 본인이 훈련을 많이 했고 준비를 잘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신뢰를 내보였다.

조상우는 8일 롯데와 경기에서 1이닝 2실점, 11일 NC 다이노스전에서는 1이닝 1실점 등 아직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 감독은 “아무리 잘 던지는 투수도 시즌에 홀드 20~30개면 훌륭한 결과”라며 “너무 많은 것을 보여달라고 하면 선수가 부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범 경기 타율 0.100에 그치고 있는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드먼을 이날 5번 타수에 배치할 것에 대해 이 감독은 “5번도 가보고, 6번도 가보고 하면서 체크하는 중”이라며 “시즌 들어가면 한 타선으로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실험)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시즌 최우수선수(MVP) 김도영에 대해서는 “타순 고민 없이 3번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승부차기 끝에… 레알 마드리드 UCL 8강행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가 ‘마드리드 데비’에서 승부차기 끝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꺾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랐다.

레알 마드리드는 13일 오전(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리아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 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 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2차전 원정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승부차기에서 4-2로 이겼다. 1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브라힘 디아스의 결승 골로 2-1 승리를 거둔 가운데 이날 경기 시작하자마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코너 킬러가 선제골을 터트려 합산 점수 2-2로 맞섰다.

이후 연장전까지 양 팀 모두 추가 득점에 실패했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허비가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승부차기 승리로 8강 진출을 확정짓고 기뻐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후 연장전까지 양 팀 모두 추가 득점에 실패했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허비가

갈렸다. 이날 승리로 대회 최다 우승팀(15회)이자 지난 시즌 챔피언인 레알 마드리드는 우승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임직원 일동

